

여수시, 생계형 채무자 빛 103억 '소각'

여수시가 '서민 빛 탕감 희망 프로젝트'로 생계형 채무자의 빛 103억원을 소각했다.

시는 3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주부 등 사회적 약자 604명의 채무 103억원(원금 38억, 이자 65억)을 소각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는 지난달 28일 시와 여수수협, 여수·여천신협, 새마을금고 등 13개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기부를 통

시청 회의실서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소각식

'서민 빛 탕감 희망 프로젝트' 협약첫 결실

해 서민 빛을 탕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결실이다.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 중 파산 실적, 질병 등의 사유로 채무상

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을 기부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성금 기부로 채권 소각에 힘을 보탰다.

시는 이날 소각으로 그동안 빛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경

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서민들이 새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60%가 빛을 지고 있고 장기채무에 따른 사회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서민 빛 탕감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진도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시행한다

진도군이 지난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간소화를 시행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는 경우, 종전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진도군 관내 모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을 경우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민원 24시)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으로 본인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 읍·면사무소에 지문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단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시에 수수료가 면제 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시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우드랜드 편백소금집 입장권, 농협에서 구매하세요"

지난 4월 장흥군-농협장흥군지부 협약 맺고 이달부터 입장권 판매



장흥군은 이달부터 농협장흥군지부에서 우드랜드 편백소금집 입장권 대행판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장흥군과 농협장흥군지부는 지난 4월 편백소금집 입장권 대행판매를 위한 업무협약 맺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우드랜드와 관련된 공식 엠블럼과 로고 등을 포함 홍보물

을 농협에 비치하고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했다.

편백 소금집 입장권은 보통권 성인 8천원, 청소년 6천원, 어린이 및 장흥군민 5천원, 경로 4천원이다.

입장권을 구입하면 편백소금집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통행증도 제공한다.

2011년 3월 문을 연 편백소금집은 소금 마사지방, 해독방, 황토방, 편백 반신욕 등 다양한 치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소금집 내의 천연염색소금과 원적외선 방사소금에 효능기 집합과 독소 배출, 성인병 예방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김종민 기자

장흥군, 2017 농업인대학

아카데미 교육 열기 '후끈'

올해 11월까지 총 20회 100시간 동안 전문 강사 초빙 교육

장흥군은 지난달 30일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11기 장흥군농업인대학·아카데미 교육생 131명을 대상으로 7회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전남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전남 농업의 발전방향 및 미래농업 전망'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장흥군농업인대학은 올해 11월까지 체계적인 생약초, 한우, 유기농업, 농업마케팅, 아열대과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1월까지 총 20회 100시간 동안 유기농업의 이해와 재배기

술, 토양관리, 생리장해, 친환경 병해충방제, 미생물 활용 GAP 인증,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농산물 판매전략, 아열대과수 재배 현황 및 전망, 재배관리기술 등 각 분야에 걸친 전문 강사진을 초청해 전문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 대학·아카데미 교육은 농업인 교육 질적 향상을 높이는 교육으로 농업인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무안군 현경면, 홀통해변 아름다운 꽃밭 가꾸기

무안군 현경면(면장 서평득)은 오는 8일 홀통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꽃밭조성과 함께 해변 진입로 600여 미터에 비라개비를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대비해 지난 5월 조성한 해변 주변 꽃밭에는 현재 메리골드를 비롯해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이 개화해 아름다운 해안선

과 색색의 비라개비들과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현경면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꼭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가성 기자



홈페이지: www.i-honam.com

지역구감미래창조.전문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일본뇌염 경보' 발령, 여수시 주의 당부

질병본부, 부산서 뇌염매개모기 기준 이상 발견

여수시가 지난달 29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3일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실시한 모기감시결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발령기준 이상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본뇌염 경보는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이상일 때 발령된다.

부산에서 지난달 23일 채집된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의 하루 평균 채집 개체수는 531마리로 전체 모기의 72%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올해 경보발령은 지난해(7월 11일)보다 약 2주 정도 빠른편이라 6월 중에 경보가 발령된 것도 지난 1997년 이후 처음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이상일 때 발령된다. 그러나 극히 드물게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일본뇌염에 감염된 사람은 28명이었고 이 중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모기장 사용으로 모기의 침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생후 12개월에서 만2세 아동은 일정에 맞춰 꼭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희망의 길

무수한 발걸음이 땅 위에 길을 만듭니다.
 땀과 열정이 희망을 만듭니다.
 중서민 및 중소기업 중심의 최고 소매전문은행이 되도록
 더불어 풍요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 되도록
 광주은행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www.kjbank.com | 고객을위한 행복금융파트너 | **광주은행**